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6.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신경 • ☎ (044) 201-4307, 4315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드론 성능·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 12.6일, 사회 29면) >

◆ 무등록 드론 1만대 비행 ...사고나면 '속수 무책'

-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레저용으로 보급되면서 사용인구 급증
- 무게 12kg 이하 드론은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 파악 불가능
- 정부 뒤늦게 선진국 기준에 따른 등록 요건 강화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드론 자체 중량 12kg 기준의 단순 무게 중심의 기체신고, 자격기준 및 비행승인을 「위험도·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」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. (‘19.10,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)

○ 이에 따라, 중량 및 위험도·사용빈도를 감안하여 분류기준을 재 정비하고, 특히, 12kg 이하의 기체에 대하여 기체신고·조종자격 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□ 「위험도·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」 개선 시행을 위해 「항공안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,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하여 안전관리 강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□ 또한, 드론 비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드론 비행금지 구역 및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“Ready to Fly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* Ready to Fly 서비스 정식 오픈 (‘16.7.28~)

○ 드론 비행 전 동 어플을 이용해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치별 구역·기상·비행허가 소관기관 정보 등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및 안전한 드론 비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신경 사무관(☎ 044-201-43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